

지역 소식통

정읍, 장애인 취업박람회

정읍시는 25일 곰두리스포츠센터에서 '2024 정읍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고용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정읍시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중개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각종 일자리 유관기관이 협력해 마련됐다.

이날 박람회에는 정읍에 등록된 장애인 500여명과 하립·대우전자부품·투스플렉시스 등 10개의 구인업체가 참가해 기업 홍보와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각 기업체는 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무직·생산직·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원스톱 구인활동 서비스를 제공했다. 추후 기업별 자체 심사를 거쳐 채용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참여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별 메이크업 컨설팅,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실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계업체와 계약 완료

정읍시는 지난달 공공산후조리원 설계 공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설계업체와 계약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계약 완료 이후 업무 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설계 진행 계획을 협의하고 5월부터 설계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공사비 58억을 투입해 용계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10실의 산모실(총면적 1400㎡) 규모로 2026년 초 준공을 목표로 지어질 예정이다. 산모실과 영유아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돼 서남권 산모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정업체는 "산모와 신생아가 누릴 수 있는 친환경 공간과 출산에 대응이 가능한 공공 커뮤니티 복지시설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해 일체감과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혁명의 시작 무장기포'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5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를 개최했다.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정기백 이사장)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공음면 무장기포지(국가사적 563호) 일원에서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사회단체장과 전국 유족회 및 기념사업회, 영선교 재학생, 군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왕기석 명창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제17회 녹두대상 시상,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무장음성 입성재연 행사를 열었다.

'제17회 녹두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앞장서 오고, 지난 1월 '전국 동학농민혁명 연대' 창립에 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5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를 개최했다.

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고재국)이 수상했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또 주영채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과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무장포고문(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낭독과 영선고등학교 학생들의 동학농민혁명군 4대명의 및 12조 계군호령 낭독은 고창무장기포기념제의 의미를 더했다. 포고문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하다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로 시작해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으로써 죽고 살기를 맹세한다"로 이어진다. 당시 포고문은 고부 농민봉기 이후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지도부가 무장현(현재 고창군 공음면)에서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선언 하면서 발표됐다.

동학농민혁명의 대의명분을 함축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격문을 보내 농민군들의 합류를 촉발했다. 여기에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인 대규모 항쟁으로 커지고, 우리나라 역사의 민족·민중항쟁의 근간이 되는 선언문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130명의 영선교 학생들이 다른 8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농민군 복장으로 죽장을 들고 약 7.2km의 진격로를 걸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그린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우뚝'

농림부 그린바이오 소재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정부 국정과제(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추진 전

락 '농식품분야 공공바이오과운드리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총 99억을 투자해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과 생산과정을 자동화·고속화·표준화하는 첨단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선정을 위해 초기 사업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그린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첨단분석시스템을 바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장비·시설·인력이 확보된 최적 적합지임을 소구했고, 그 결과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은 지난해 2월 미생물분야 전국 유일의 그린바이오 거점으로 지정된 (재)농축산융합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수행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간담회·협약식

부안군은 지난 24일 부안군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 간담회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와 협업체 효과적인 자살예방 서비스를 사각지대 없이 전달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회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살예방 사업을 읍면 단위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은 부안읍, 변산면, 진서면, 백산면 내 10개 분야(병·의원, 학교,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약국, 마

트, 농약사, 이장단, 지역사회보정협의체, 읍면사무소)의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 기관은 과학적으로 성과가 증명된 자살 예방 사업인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수단 차단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김영식 기자

437억원 규모의 '농촌협약' 체결

고창군-농식품부, 읍·면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고창군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2024년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고창군 비롯한 농촌협약 대상 22개 지자체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등 시·군이 직접 수립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 협약을 통해 각 개별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다.

고창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 다음 보전지역 '고창'을 비전으로 2023년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농식품부와 전문가의 조정·

보완 검토를 거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반영된 농촌 공간 전략계획(2024년~2043년) 및 활성화 계획(2024년~2028년)을 수립하였다.

고창군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도비 313억을 확보한 총사업비 437억원으로 읍·면의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나선다. 특히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2개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3개소) △농촌 공간 정비사업 등 총 1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고창읍이 가진 생활 서비스 기능을 군 전 지역에 공급하며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농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308억 투입

부안군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2024년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익현 부안군수, 22개 지자체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 경제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농식품부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지역 발전계획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안군은 지난해 5월 농촌협약 선정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와 수

차례 지문을 통해 최종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올해부터 5년간 국비 214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8억원을 투입한다. 4개면(줄포·계화·백산·상서)을 중심으로 생활SOC시설 확충과 문화·복지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활력있는 농촌 경제와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부안군은 25일 100MW 규모의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고했다.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2024년 6월 3일까지 40일간 공고한 후 사업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100MW씩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 권리를 부여받은 4개 지방자치단체(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배분된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

하고 발전소 건설 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고했으나 사업자들의 관심도 하락으로 유찰되자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번 공고에서는 사업자들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 새만금 부지 사용료 감면 등을 건의하는 한편, 사업설명회를 마련하여 본 공모의 목적과 공모 방향, 사업구조 등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여 사업자들이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